



## 보건복지 이모저모

### ●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확보비율 확대

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%에서 70%로 확대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[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] 개정안을 마련하고,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개정안에 따르면,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% 이상 되어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.

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.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,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### ● 어린이 식품 영양정보 신호등 색깔로 쉽게 확인한다!

보건복지부는 과자, 초콜릿,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신호등표시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신호등표시 대상식품 선정에 대한 소비자, 전문가 및 식품업계와의 간담회,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자류, 초콜릿류, 아이스크림류, 용기면,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을 표시하기로 하였다.

## 내년부터 노숙인 폐결핵 환자를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추진

질병관리본부 서울대학교 임재준 교수팀과 함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  
시에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노숙인 폐결핵 유병률 및 결핵감염률 조사」 결과,  
서울역, 영등포역 등의 거리노숙인과 쉼터, 노숙인보호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 
313명의 검진 결과, 활동성폐결핵\* 유병률이 5.8%(18명)였으며 나머지 295명 중 75.9%(224  
명)가 잠복결핵감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. 노숙인 활동성폐결핵 유병률 5.8%는, 우리나라  
일반인구집단의 '08년도 추정 결핵 유병률 0.25%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.  
질병관리본부는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, 노숙인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치료완치율을 높이고,  
재활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토털케어적 지원을 위하여 2011년에 우선 노숙인이 가장 많은  
서울특별시 「노숙인 결핵집중관리시설」을 건립 추진키로 하였다.

## '10~'1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

질병관리본부는 8월 19일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, '10~'11절기('10년 9월~'11년 5  
월)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노인, 심장·폐 질환,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 
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 그리고 생후 6~59개월 소아 및 임신부 등을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로  
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.  
금년 절기는 지난해 발생했던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(A형 H1N1)가 대유행 수준까지는 아  
니지만 통상적인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고, 이외에도  
1~2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(A형 H3N2, B형)가 더 유행할 것으로 예측된다.

##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지역 여행자 예방접종 당부

질병관리본부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(36세/남자)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사망하였다고  
밝혔다. 이 환자는 8월 10일 고열과 폐렴 유사 증상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아  
왔으나 8월 28일 사망하였다.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인도, 뉴질랜드, 호주, 태국, 말레이시아 등  
동남아시아, 서남아시아와 남반구 국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(H1N1)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,  
이들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할 것을 권고하였다.